

우한 코로나 19 이후 한국교회의 미래와 진단 대신교단의 코로나19 대처와 코로나 이후 대안은?



▲지난 27일 세예멘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 전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국가, 교회,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 전체가 우한 코로나 19 전염병 재앙으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pandemic 상황으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우려는 정부로부터의 교회 탄압과 교회의 분열, 무분별하게 실시한 미디어 온라인 예배,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 훼손은 결국 큰 상처와 아픔으로 2020년 후반기에 더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이제 총회는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일하심을 영적 관점으로 살피며 모두가 하나, 되어 그동안 나도 모르게 영과 육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과 자만과 우월감을 버리고 77일 동안 회개, 겸손,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는 비상한 자세가 총회 지교회에 필요하다.

한편 지난 27일 우한코로나19이후 한국교회의 미래와 진단이 새예멘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소강석목사와 21세기 목회연구소장 김두현목사가 강의했다.

먼저 코로나가 가져다 준 교회 환경 변화에 대해 "세상적·문화적·시대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세울 수 없거나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교회 이탈자가 증가하고 출석 숫자도 새신자도 감소하고, 헌금과 재정도 감소하는 등 교회에 극심한 위기가 찾아왔다. 더한 문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도전도 변화도 혁신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목사는 "한국교회가 이후에도 현장 예배를 전면 취소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수라도 현장 예배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현장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테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둘째로 "성도들이 몇 달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교회와 예배에 대해 너무 태만해졌고 사교가 냉담해졌으며, 방치하는 습관도 체질화됐다"며 "성도들 중 절반 정도는 교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됐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말

은 성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도 교회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로 '성도들 신앙의 육체적 세속화'이다. 그는 "너무 몸을 사리고 건강만 생각하다 보니, 성도들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영성을 잃어버린 채 예배의 성소권을 빼앗겼다"며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허용의 섭리 안에 있지 않은가. 코로나는 바이러스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교회를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 내려 하는 악한 세력의 정체를 보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4.15 총선 결과가 보여준 진보 사회로의 변화'이다. 그는 "총선에서 보수가 패배한 원인은 국민적 분노를 발산시키고 확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승화시킬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분노만 일으켜선 실패한다. 한국교회가 이를 따라가선 안 된다. 교회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대화합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쪽으론 가면 처음에는 카타르시스에 느껴지고 좋겠지

만, 이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집회도 계속 나가다 보면 식상해진다"며 "전도도 마찬가지다. 논리가 중요하지만, 정서와 감성적 접근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이제 모두를 포용하는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한 쪽으로만 가면 혐오 세력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섯째는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이다. 그는 "뻔한 전략, 뻔한 매뉴얼을 따라가다가는 참패할 수 있다. 21세기형 새로운 포맷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설교자, 같은 예배이지만 알맹이가 새로워질 수 있다. 저는 '미스터 트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착상을 얻게 됐다"며 "처치 플랜팅'도 기존의 미미인 교회 개척을 넘어, 화석화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 그 동력으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의미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목사는 "오는 9월 총회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현의가 올라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두고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배도 아니다. 예배에는 집합성과 집례성이 있어야 하지만, 전염병이 만연하는데 교회가 수퍼 감염의 진원지가 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뱃꽃놀이를 가고 백화점과 식당, 카페에는 잘 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준수하지 않는다"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향후 일상적 방역으로 돌아갔을 때, '다음 주부터 예배드린다'고 광고하면 교인들 중 몇 퍼센트가 교회에 나오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서 21세기목회연구소장 김두현목사는 4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가정과 교회회복을 위한 77비상공동체를 제안하였다.

이연종기자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앞장섭시다.



전광훈목사

제49회 기총회장
한기총대표회장

교회여 일어나라! 국민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자!

세상이 이렇게 되어도 왜 목회자들이 잠잠하는가? 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시작한 자들이 다 신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앙겔스, 칼막스, 레닌, 스탈린과 같은 자들이 어려서 신학에 가까이 갔던 자들입니다.

신학에 가까이 갔던 자들이 오히려 공산주의에 빠지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신학을 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30만 목회자들이 현 사회에 대해 문제인의 편에 서는 것을 보면 '과연 저들 속에 예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신학해서 목사가 되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이념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지역을 따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도 90%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란 이유로 따랐던 것은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본능으로 주사파나 문제인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전광훈 당신은 왜 대한민국과 이승만을 주장하느냐' 하고 감옥에 있는 내게 편지로 따집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승만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정신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신학사상이 칼빈주의의 주권신학을 만들었고 칼빈주의가 민족주의를 만들었고 이승만이 성경을 기초하여 미국 헌법을 초안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뿌리가 성경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부럽지 않습니까? 미국의 돈이나 학교와 기념탑에는 성경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분별이 되어 집니다. 목회자들은 평신도든 대한민국과 헌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 것이요, 문제인과 주사파를 동조하는 자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0%가 호남 목회자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친구들 90%의 호남 목회자들은 한 걸 같이 문제인과 주사파를 버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제가 설득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없는 목회자들이 사단에 빠져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사회주의 주사파를 따르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요, 가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종교개혁이 새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좌파 편에 선 목회자나 지도자는 기독교라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가짜 복음을 이용하여 혼란케 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천 2백만 성도여, 30만 목회자여, 25만 장로들이여, 우리 모두 복음으로 일어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앞장섭시다!

2020년 4월
전광훈목사

Contents

2 교단소식

3-5 교계소식

6 신학산책

7-8 신앙과 삶



담임목사 강대석



청운교회는 '작은한 사람이 있는 교회, 속자가 있는 교회, 복음의 바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 소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3번길 4
>>> 경인교대 6번출구
연 락 처 032)544-2341
F A X 032)543-0182
홈페이지 www.cwch.org

청운교회
CHUNGWON PRESBYTERIAN CHURCH

독일 교회, 현장예배 재개... 그러나 악수·찬양은 제한 뮌헨한독교회(김종욱목사)코로나19로 힘든시기, 공예배시작을 알리는 편지



▲ 뮌헨한독교회 (담임 김종욱목사)가 주일예배 드리고 있다

독일 뮌헨한독교회를 섬기는 김종욱목사는 코로나19영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드디어 회중예배 시작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다음은 뮌헨한독교회 김종욱목사의 편지 전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두달동안 가정에서 지내시느라 육체와 마음이 모두 지치신줄 압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정부는 5월 4일부터 학교를 시작으로 조금씩 모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국가교회에서도 50인 이하의 예배모임을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뮌헨한독교회도 몇주간의 의논 끝에, 5월 10일 주일예배를 함께 모이는 회중예배로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예배의 방법은 당분간 회중예배와 가정예배 두가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고, 당분간 가정예배로 드리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안은 이전과 같이 계속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예배참석을 위한 지침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하며, 예배당 입장시 손세정을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둘째, 성경찬송은 자신이 소지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포함 교회 비치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예배당 안에서 물건이나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넷째, 예배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를 수 없습니다.

다섯째, 헌금은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중에 헌금순서가 없습니다.

여섯째, 성찬식과 세례, 그리고 임직식과 같은 특별행사는 부득이하게 가을 추수감사절까지 연기하겠습니다.

일곱째, 주일학교를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잘 택하시길 권합니다.

여덟째, 예배당 안에 머무르실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애찬과 교제시간이 없습니다.

아홉째, 교회에 오고 가는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는 불편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회중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뮌헨한독교회 속한 모든 가정과 개인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뮌헨한독교회 김종욱목사

한편 독일 교회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장예배를 재개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양한 제한 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지난 3일 독일의 많은 교

회가 대면예배를 드렸다.

"이같은 조치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악수와 찬양을 허용하지 않는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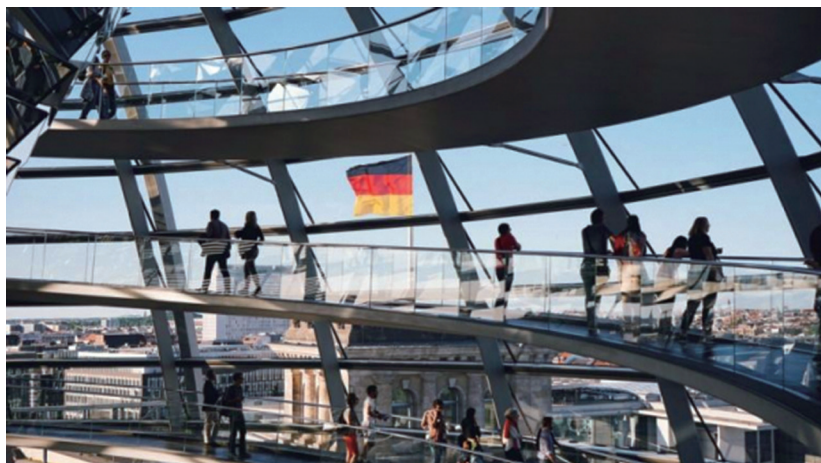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예배당 외에도 박물관과 운동장, 소규모 기업의 재개를 허용했다.

메르켈 총리는 "새로운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염자가 급증하면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독일 가톨릭 교회는 특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요건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면예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칼 주에텐(Karl Juesten) 주교는 독일 가톨릭 간행물 KNA 인터내셔널에 "특정 접촉 제한규정이 남아 있다. 특히 찬양 시간에 감염자가 없도록 규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성찬식의 위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교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염병이 발생 전 하루 평균 2만명이 방문한 교회인 독일의 유명 교회인 쾰른 대성당(Cologne Cathedral)은 122명이 참석가능한 소규모 예배를 제공한 바 있다고 CP는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및 Reformed University 개강예배 남양주, 성북, 용산, 부천, 대전 등 지역별 캠퍼스 운영, 학생모집 최우선 2020년 5월 2일 오전 11시 총회 찬양대실, 30여명 모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및 Reformed University 개강예배 설교는 총장 김향주 박사가 했다. 김 박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가운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개강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개혁파 신학이 진수를 드러내는 총회신학교와 Reformed University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시간 속에서 다음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가 30여명 참석하여 개강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 1학기를 개강하였다.

강영철교수의 사회로 황성목목사의 기도 총장 김향주목사는 2월20일, '개혁파신학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김 총장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시대 돌아가는 신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영철목사의 교수소개는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담당



▲ 2020년 5월 2일 오전 11시 총회 찬양실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황성목, 김장호, 이연중, 양한영, 박선원, 박재식, 조성원교수 순으로 소개하였다.

이어 격려사는 박재식목사, 축사 박선원목사, 조성원목사순으로 진행되었다.

광고순서는 김만태목사 대외협력처장이 하고 마지막순서는 청파중앙교회 담임 김향우목사의 축도로 개강예배를 마쳤다.

한편 총회신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M.div는 Reformed University, 연구과정으로 총회신학교는 지방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도 가능하며 현재 남양주, 부천시 용산구 등에서 수강하여 교단목회자 양성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학교는 성경학교를 병행운영한다. 그래서 목회현장에서 지친 목회자 및 현장을 성경으로 해석하여 삶의 감사의 생활을 누리는 성도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식과 정교분리원칙이 부재로 인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연중기자

대전노회는 오전에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3시 목사 임직식을 거행 2020년 4월 27일 대전 하늘소망교회, 김제영신임목사 임직



김종대 목사

대전 노회장

김재영 목사

하늘소망교회 부목사



▲ 대전노회 목사 임직식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총회 소속 대전노회 제76회 정기노회가 지난 27일 하늘소망교회(김종대 목사)에서 열렸다. 대전노회는 오전에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3시 목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 날 목사 임직식은 특별히 노회장, 담임목사가 아버지이신 김종대목사 아들 김재영목사가 목사임직을 받았다

제1부 예배는 부노회장 임병우목사의 인도로 회의를서기 차명석 목사는 기도

하였으며, 회계 정재덕 목사가 고린도전서 15:10절 말씀을 봉독 하였다.

노회장 김종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제2부 임직식은 대전노회장 김종대 목사의 집례로 서기 엄범재 목사의 임직자소개 노회장 김종대목사가 임직자서약과 인수위원들이 안수와 깨운작의 악수례와 대전노회의 권위로 김재원 강도사가 목사로 임직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순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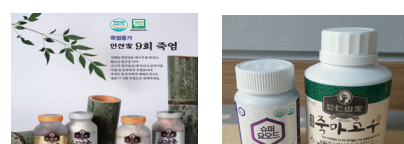
제3부 권면과 축하의 시간은 명예총회장 신석장교회 박근상 목사가 임직자를 위한 권면, 증경노회장 권재천 목사가 성도를 위한 권면, 대전교회협동신문사장, 최정환 목사와 서울동노회장 강영철목사는 축사를 했다.

또한 하늘소망교회 청년부가 축가로 임직자와 하늘소망교회에게 축하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에서 임직패와 신임목사의 인사및광고 증경노회장 김성수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강영철기자

변역력-미네랄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 19 매출급증☆



죽염 9회 교체 분말 5회

3회 죽마고우 원장 고추장 죽염수 히트상품



인산죽염 송도대리점
Tel. 010-9382-7790
점장 백화자

인산의학 월간지

구독신청서 무료보내드립니다.



☆ 목회자 특별할인혜택 ☆

대신교회협동신문

발행인 강대석 대표 최충환 주필 박근상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편집국장 강영철 광고국장 김용백 영업국장 이창복 인쇄인 이병동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특집

코로나19 한국교회 던진충격

면접자주 - 본지면은 어떤 특별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한국교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비상 특별 세미나의 목적은 어떤 특별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 한국교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고민하면 할수록 문제의 실마리를 풀뿐만 아니라 답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시기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완품도 아니지만 고민들을 풀어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어서 기쁘다. 나는 오늘을 기다리며 참 많은 메시지를 홀로 고군분투하며 준비하고 전달했고, 미래 한국교회의 암담함을 조금이나마 대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시작부터 코로나 쇼크가 한국교회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먼저 그 충격이 무엇인가를 목사가 반드시 보다 면밀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7총격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다.

1. 반달리즘vandalism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이탈적 문화 반달리즘vandalism 즉 파괴행위를 2-3개월 동안 한국교회가 겪으며 교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심각성을 경계해야 한다. 고유한 교회라는 신앙의 자유와 예배, 집회의 자유가 있음에도 교회의 조직, 질서, 관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나치게 코로나로 인해 탈법적으로 발생했다. 그것은 마치 국가 무신론주의state atheism 캠페인, 종교 반대 캠페인antireligious campaigns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마치 신천지와 같은 프레임으로 한국교회를 몰고 갔다. 앞으로 한국정부와 사회는 교회를 함께 가야할 파트너가 아닌 이탈자로 낙인을 찍은 것에 아픔을 느끼며 강력한 시정을 권고한다. 유독 교회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7대 수칙을 지켜야만 하고 관계자들의 감시를 받고, 교회 전화와 문자, 방문에 의한 위협, 언론과 여론의 웅단폭격이 하루도 쉬 없이 그동안 수천 번 의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교회는 사상전ideological warfare 앞에 모두가 항복을 했다.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공격 제1 목표가 되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 함정에 빠뜨리고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 이완relaxation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한국교회는 점차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는 부패, 범죄, 사악, 불의, 정치 그룹도 아닌데 공격 대상된 원인은 그동안 교회의 일치, 연합, 공조에 이득 세력들이 기독교를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아직도 국가의 체제에 무조건 동조하며 한국교회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내부자들의 침투를 막아내거나 뿌리 뽑지 않은 결과이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활동하는 반달리즘 추종자 그룹인 방송, 언론, 교단, 단체와 기관, 이단과 안티, 신학교, 소수의 종교 지식인의 이데올로기를 깨뜨리는데 한국교회는 연합해야 한다.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가 살려면 강력하게 영적대항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2. 문닫음shut down

한국교회에 코로나가 준 가장 악영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빌미로 교회에 대한 정부의 lockdown제재, 봉쇄, 폐쇄에 유독 교회를 지목하여 전체 국민들에게 교회의 부정적 시각과 불안이 노출되면서 한국교회의 대책은 대형교회에서 소형교회까지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shut down되버린 상황이 되었다. 예배, 모임, 사역, 전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멈춰버린 상태가 섰다. 이렇게 된 3가지 원인은 기독교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도 없었고, 코로나 대비 매뉴얼manual도 없었고, 방향을 이끄는 메시지message도 없었기에 방황하며 교회 중단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밀어닥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동안 목회환경을 말할 때 그래도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도저히 목회환경 파괴로 인하여 다시 교회 부흥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목회의 문을 활짝 열려면 코로나 이전의 2-3배 처절한 변화와 처치 플랜팅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가상예배live stream service 인터넷 예배, 주중예배와 기도회 모임과 사역 중단으로 한국교회는 마비된 상태가 되었다. 섰다움을 속히 중단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3. 소수집단minority

코로나 이전 한국교회는 포지션영에서 그렇게 마이러니티가 아니었다. 청와대, 정부, 국회, 사법,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공격할 때 한국교회는 pushback저항이나 반발도 하지 못하고, Pastors defiant목사들의 공개적 반항도 없이 무자비하게 당하기만 하다가 지금은 아무리 교회가 메시지를 내도 그들은 냉담을 넘어 더 공격, 비판, 분노를 하며 맹비난하며 마치 한국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청와대, 여권, 지자체 단체장, 교육감, 경찰, 검사에 이르기까지 막무가내 대응일변도를 보면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완전히 마이러니티가 되어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는 참담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소외되고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목회와 전도 환경이 매몰되는 악순환이 빠른 시일 내에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소수집단에서 중심집단central group으로 변혁을 이루려면 목사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세속화 신앙이나 자기 우월주의, 교만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급격 신속하게 일어나 새벽이나 밤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피야 한다.

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공적 주의 믿음이다. 둘째, 도피주의-자신을 세상 보다 위에 따로 들어 올리거나 폭넓은 사회생활을 피하여 개인적인 명상의 세계에 은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도로 이원론적 금융주의와 신비주의 믿음이다. 셋째, 바리새주의-자신의 실제적인 모습보다 더 영적인 체 하는 시도로 형식주의 믿음이다. 넷째, 완전주의-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이루어 질수 있다고 믿는 시도로 성교주의 믿음이다. 다섯째, 엄격한 실천주의-신앙생활의 훈련을 불변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엄격한 율법주의 믿음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는 고립되거나 이탈 그룹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로 부터 교회가 존중을 받으려면 사이즈가 아닌 퀄리티, 캐릭터를 통해 교회의 질적 향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4. 뒤죽박죽upside-down

코로나로 인하여 거꾸로, 곤두박치는, 뒤집힌, 혼란한, 뒤죽박죽의 세계 upside-down world이지만 한국교회는 초기 대응에서 실제적 문제 접근 방식 혹은 미래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너무 안일하고 사유적 주장에 빠져 코로나 전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는 이념, 사상, 의식에 참 안타까움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사들의 팩트를 그대로 보고 관찰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그리도 교회를 보는 관점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고, 대다수 목사들이 잘못 판단하거나 아직도 복원력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영적 리더십을 보면 한국교회가 큰 걱정이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는 점진적 플랜팅이 필요하다. 몇 주, 몇 달에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 업사이드다운 현상은 질서 회복을 위한 교회본질, 예배관, 공동체, 네트워크까지 다시 플랜팅 해야 한다. *온라인 주일예배, 멀티 사이트 교회로의 전환, 헌금방법 개발, 기도회, 모임, 교육 미디어 대체 등, 이것은 결국 한국교회의 쇠퇴를 앞당기는 좌 추수가 된다.

5. 용감한fearless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숙함으로 대처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독교 역사 135년은 전염병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함의 전쟁, 식민지, 공산주의의 테러, 혁명, 이단과 사이버 종교의 공격에 오직 교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싸워온 두려움을 모르는 교회 fearless church에 의해 오늘 같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제2의 처치 플랜팅 처치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세움에 용감한 교회가 필요하다. 비겁하고 타협하고 과신하는 목사들이 변해야 한다. 이리저리 붙어 다니는 행세를 버려야 한다. 기회주의, 표리부동, 자기 우월감을 버리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절망과 비

탄a sea of despair and grief의 바다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우리는 일어서기 위한 용감한 기도회, 용기있는 설교, 패기 넘치는 예배를 열망해야 한다. *차수별 기도회를 실시하여 끝까지 일어서도록 힘을 모은다. *머뭇거리는 관망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대비한다.

6. 반전reversal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역시 기회이다But amid the darkness,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그래서 reversal techniques반전 기법들이 요구된다. 코로나로 인한 영적 분위기 어둠, 흑암에서 한국교회는 반전과 역전을 할 것이다. 교회로 돌아오도록 다시 회복을 외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 것이다. 경험보다 더 무서운 교육은 없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총격적 경험을 했다. 교회가 중요한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목사들은 침묵 속에서 많은 깨달음과 겸손을 배웠고, 성도를 자신도 믿음의 한계에 부딪칠 때 형편없음을 몸소 느꼈다.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 태도로 일어나서 않으면 그대로 있다가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를 하고 교회들마다 동기부여motivation와 비전vision을 주는 도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능동적 경험에 집중하는 교회는 리버설하게 된다. 반전이 곧 회복이며 승리이다. 교회와 예배 원상 복귀와 완전 회복을 위해 새벽 기도회와 작정 밤기도회를 하고 강력한 성령체험을 구하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헌신하며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 기도, 말씀, 연결, 참여를 확고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서로에게 전하며 반전의 날을 향하여 다같이 행진해야 한다.

7. 원원지epicentre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교회 세움을 실시할 수 있는 처치 플랜팅의 에피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쇼크를 겪으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아직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 게으름, 방치,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세움의 원원지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순절 날을 향하여 120명이 하나 됨으로 오직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던 모습이 바로 에피센터이다. 같이 하나 되서 결국 교회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의 진원지인가? 왜 우리는 D-day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Super sunday완전 회복의 날을 꿈꾸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축복이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신 과거가 없다.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교회는 세워지고 자란다.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생명나무이다(고전3:3).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7대책과 전환은 처치 플랜팅 프레임과 프로세스를 탐구하며 좀 더 심도 있게 교회세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공급하는 자료이다. 교회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공부해서 교회를 모르고 묵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교회를 세워라(마16:18).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D-day를 교회들마다 70% 이상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되어 슈퍼스테이에 100% 참여하게 한다.*그 날부터 한국교회는 모두 추수감사절까지 결실에 매진한다.**

코로나를 이기는 14가지 진리의 말씀들

코로나바이러스 직면 속에서 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14가지 진리의 말씀들이다. 코로나19가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 구절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1. 코로나바이러스의 의미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과 보호 아래 산다.

*이사야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통제를 잃은 것이 아니고 그의 세상과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통제 control하고 계신다.

*시편 115: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마태복음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삿사리에 팔리지 않느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는 것은 독립적, 물리적, 자연적 현상이지만 최종 하나님의 결정과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사야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4.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건강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누가복음 12:4-5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5. 죄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치명적이며 전염병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다.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 두려움은 우리들을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이끄는지 주의하고 바이러스를 다루는 것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유지하고 관대함과 우리의 자원들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

*사도행전 4:34-35 34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의 값을 가져다가 35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7. 최근 코로나 뉴스에 관한 강박감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골로새서 3:16-17 16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8.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에 감사하고 정부가 하는 대처에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야 한다.

*야고보서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9. 정부나 국민의료서비스보다 주님의 돌봄과 인도로부터 위로가 오고 안전의 감각이 최종적 목표가 되게 하라.

*시편 44: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10.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서, 이 같은 바이러스 출현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를 더 의지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1.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체는 우리의 세속성을 끊게 하고, 이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일시적임과 죽음의 사실을 알려 준다.

*로마서 8:22-23 22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그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소량을 기다리느니라.

12. 우리들의 최종적 희망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발견과 그에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3. 나의 마음을 다해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 전염병에 관하여 근심과 두려움에 잠착과 빠지는 것에 마음을 주의해야 한다.

*빌립보서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14.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이 세상에서 건강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신명기 8:3 너를 낫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코로나19 종식 의미 아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 교회는 더 엄격히 지켜야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대면으로 전환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가 종료된 이후 2주간은 코로나19의 감염추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새로운 생활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이날 정례브리핑을 온라인에서 다시 대면으로 44일만에 전환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세부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첫 날”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산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동안 방역당국이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해서 격리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을 통제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설명하며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요령 등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고, 일상에서 창의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현장브리핑을 재개하면서 “다시 직접 얼굴을 뵙고 질문도 받고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고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 종사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

팀(044-202-3804)

한편 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지만, 기독교 의료진들은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보다 더 엄격히 방역을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서정성 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방역에 더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원장은 지난 2월 대구에서 ‘31년 확진자’가 나오고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때 ‘달빛의료지원단’ 중 한 명으로 대구에 갔다. 2월 28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대구 지역 거점 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을 오가며 환자들을 치료했다. 하루 700~800명씩 확진자가 폭증할 때는 공포도 느꼈다. 서 원장은 “확진자는 급증하고 중국에선 의료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두려웠다”면서 “전 세계 재난 현장에 많이 갔지만, 그건 상황이 끝난 뒤였고 대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압박도 컸다. 그때마다 기도에 의지했다”고 전했다.

사투를 벌이는 기독교 의료진을 힘 빠지게 한 건 일부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는 뉴스였다.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서 원장이 일한 동산병원은 미국 북장로교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의료 기관이다. 의료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다.

서 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선 신

앙인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자신의 믿음만 앞세우는 걸 보고 이기적이란 생각을 했다”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텐데 국민과 대립각을 세워야 쉬웠다”고 털어놨다.

의료선교단체인 한국누가회 소속 김신곤 고려대 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고령자가 많은 교회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무증상자인 청년들이 교회에 왔다가 고령의 성도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가 출석하는 교회는 오는 10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린다. 대신 한 번만 드렸던 주일예배 회차를 늘리기로 했다.

김 교수는 “교회가 워낙 작아 성도간 거리를 유지할 수 없어 회차를 늘리고 예배 참석도 청년과 고령자로 구분해 드린다”며 “온라인 예배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은 대단했다. 방심하는 순간 금방 퍼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나면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삶이 교회가 되는 걸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면서 “생활 방역을 하며 생활영성도 경험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철기자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5대 방역 수칙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관련 5.3.

생활속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시작

생활 속 거리 두기 5대 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철저히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정부

한국교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한다...31일 '예배 회복의 날' 시행



▲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한국교회주요교단장)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한교총 제공) 뉴스1

한국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한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한국교회주요교단장)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인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는 “한국교회는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야기

된 국민 여론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예배 전환과 오프라인 예배의 축소 및 중지라는 사상초유의 경험을 했다”라며 “상황이 진정돼가는 이때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예배를 회복해 흠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응집하는 디데이(D-day)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임회장회의에서는 성령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의미를 살려, 오는 31일 성령강림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보조를 맞춰 협력하기로 만장일치

로 결의했다. 한국교회들은 사회 구성원들과 신뢰회복을 위해 교회가 먼저 나서서 지역사회 소상공인 및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하기로 했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 제정과 시행이 한국교회의 하나 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

하고 내적으로는 흠어진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며, 정부나 국회의 교회생태계를 위협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교회 회복의 날은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 예배를 예배당예배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며, 아울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자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교총은 30개 회원교단은 산하 5만 4000여 교회에 목회서신으로 참여를 요청한다.

강영철기자

예배에 대한 각오 너무 안이... 교회론 교육강화 성도들 모이는 건 봉사·구제 아닌 예배 때문, 정부 인사들, 교회에서의 예배 가치 잘 몰라



▲ 4/24(금)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긴급간담회(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예배 너무 쉽게 포기... 다시 세워야” 소강석 목사 ‘코로나 이후 교회의 과제’ 세미나 발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 예장 합동 부총회장)가 “교회론이 건 강하고 예배의 신성함을 제대로 알았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한국교회는 다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소 목사는 24일 오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신관)에서 한국교회건 강연구원(원장 이효상 목사)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가져다 준 교회 환경의 변화”라며 “과거에는 시대나 사회 문화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교회 이탈자 증가, 새신자 감소, 재정의 감소로 인해 교회에 극심한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 목사는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태만과 냉담, 방치의 습관이 체질화돼 가고 있다”며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 보니 교회와 예배에 대한 각오가 너무 안이하고 태만하고 냉담한 사고로 굳어버렸다”고 했다.

또 “4.15 총선의 결과로 진보사회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면 보수 성향의 교회들엔 생태계의 압박이 더 부정적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돼도 ‘한국교회가 과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생긴다”고도 덧붙였다.

“교회 본질을 이해시키는 교회론 교육을 강화하고 교회를 다시 주님의 몸으로 경험하게 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던 성도들에게 예배의 신성함과 공동체성,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체험, 생명력 있는 설교를 맛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성도들 모이는 건 봉사·구제 아닌 예배 때문” “정부 인사들, 교회에서의 예배 가치 잘 몰라”

이어 발언한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담임, 한국교회언론회 대표)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건 예배 때문이지 봉사나 구제 때문이 아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 중대 기로에”

이 밖에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는 “코로나19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중차대한 기로와 시련대에 서 있다”며, “진정한 예배”라는 예배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진실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강영철기자

칼럼



〈김영규 목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소장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미국화학학회(ACS) 초청회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상급 가치관 가져야”

본 칼럼의 글을 통해서 지난해 10월 세계적 금융위기의 본질이 크게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엿보인 초기 위기 현상의 근원적 원인과 관련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현물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관계없이 빠른 정보의 공유로 인한 모든 시장들로부터 관찰이 되는 투기성 물이 현상과 서비스형 경제의 과도한 규모가 근본 문제로 언급

된 바 있다.

투기성 물이 현상이 경제 위기 초래해

다른 국가들의 경우 그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에서 적은 정부, 책임을 강조한 자유의 확대, 첨단적 평생교육 강화 및 개인적 직업의 다변화를 통한 전체적 내수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장기적 안목에서 회복될 수 없는 근거가 분명히 알려지고 있다. 미국 경제 위기의 핵심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채무 및 개인 채무가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4배에 달한다는 점은 믿기가 어렵다.

더구나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비해 쉽게 거품이 될 수 있는 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우려보다 더 크고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 역시 미국도 해결할 수 없고 물론 세계의 어느 국가도 도울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한 거품경제 속에서도 미국 국민 모두의 소비지출액이 총생산의 70% 이

세계적 경제 위기 극복과 신자들의 삶

상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허영적 소비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에 더욱 더 놀라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재정적자가 앞으로 국내 총생산에 비해 얼마나 될 것이냐도 중요하지 않고 국내 총생산에 비해 소비지출액의 비율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친히 설계하고 창조한 생산물들과 서비스들을 소비한다는 어떤 혁명적인 부의 축적 방식에 대해서 예견하였던 앨빈 토플러의 주장도 무의미해 졌다.

최근 취임 연설문에서 세계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단순히 과거의 인물들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닌 고유한 구사력을 자랑하였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큰 정부가 될 것이냐 작은 정부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일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

또한 부를 산출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시장 경제의 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변형하는 자들에게만 기호적인 나라는 오래 변성할 수 없으며, 경제의 성공은

항상 내수 시장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영의 범위에 의존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확장하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말로 약자의 편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태도는 그나마 안전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구조와 맞물려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의 경우 IMF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약간 낮은 사실을 가지고 위로를 삼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적 여파를 흡수할 수 없는 경제규모와 경제구조의 취약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것이다.

우선 독일의 경제구조처럼, 한국의 내수 경제구조를 작은 규모일지라도 세계 경제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질 좋은 수출품목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내수 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과 소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식산업과 문화산업도 그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적 실질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 뉴딜 정책을 쓰더라도 그 자체가 소모생활의 한 형태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미래 생산성이 높은 분야들의 발굴과 그 분야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합리적이고 빠른 투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위기 앞에 책임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정직, 용기와 공명정대한 경기(fair play), 관대함과 호기심, 충성과 애국심 등 오래된 가치들을 진보의 조용한 힘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의 시장 경제 안에서는 너무 이상적일지 몰라도 오래된 개혁신학의 생활적 이상들과 가치들이 살아 숨쉬기를 희망한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며 남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고유한 가치들이 예정론 안에서처럼 하나님의 의지 안에 감추어 두는 높은 삶의 질이 경제생활 안에 배어 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웃을 돕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방식처럼 높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이웃과 세계 내의 다른 이웃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방식으로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도움일 것이다.

하나님께만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상급이라는 가치는 그

렇게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쉬운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들만을 취득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삶의 내용에서 버리는 자세와 행동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겨우 가능 하다.

더구나 하나님의 속성들이 균형잡힌 내용으로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는 일이란 죄만을 쏘아 내는 개인 생활이나 단체생활 혹은 사회적 생활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이웃 사람의 숭고한 정신으로 극복해야

그와 같은 노력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이웃과 세계의 이웃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스스로 행복을 허락하라.



황성욱 목사
주님손교회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에서 스스로 행복을 허락하라는 것이다. 어떤 조건과 기준이 잘 때까지 행복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행복은 사이에 있다.

행복은 관계에 있다. 행복은 우리 사이

에 있습니다.

사람이란 사이와 연결이 사라지면 단절과 고립으로 사람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행복한 시간은 내가 관계와 연결을 맺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관계, 소통, 연결, 융합, 화평케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갈 때 우리는 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고통이 없는 즐거움은 없다.)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신기하게도 스트레스 호르몬에 즐거움을 유

발하는 도파민을 포함한 그러한 즐거움이 분비될 때... 이 두 가지가 분비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내가 땀을 흘리고 산을 내려 올 때... 또한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와 의미 있는 도전을 위해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할 때 거절당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는 마지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스트레스를 맞설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교부산책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는 130~140년경에 로마제국의 속령이던 소아시아 지방에서 출생하여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갈리아지방, 즉 오늘날의 프랑스땅의 리옹에 가서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그는 로마제국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Marcus Aurelius)의 박해로 리옹의 감독 포티누스가 순교한 후 리옹의 감독이 되었다.

그는 신실한 묵화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단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기독교를 변호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2세기 기독교 교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신론

과 인간론과 구속의 교리를 해설하였다. 그는 교회적으로는 소아시아 교회의 전통과 로마 교회의 전통을 연합시킨 공헌이 있으며 202년경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황제치하에서 순교하였다.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us)은 이레니우스를 “모든 가르침에 대해 호기심이 가장 많은 연구가”라고 말했고, 그리스의 섬 살라미스(Salamis)의 교회 감독이었던 에피파니우스(Epiphanius)는 그를 “성령에 의해 행동했던 사람이며 참된 믿음과 지혜의 은사로 임해진 사람이며, 이단들의 헛된 소리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사람”이라고 평하였다.

살라미스 섬과 관련한 역사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B.C. 5세기에 있었던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해전이 아테네 앞바다의 작은 섬 살라미스 근처에서 있었던다.

그 전투에서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작은 폴리스(도시국가) 아테네에게 패한 것이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크세르크세스로서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이었다. 이 전쟁역사와 관련하여 생겨난 음식으로서 살라미 소시지라는 것도 있다.

애국적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윤대영 목사
부천제일교회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어 1598년에 끝났다. 임진왜란은 동북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라가 바람에 나부끼는 등불 같았지만, 조정은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다. 선조는 간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순신 장군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에 이순신 장군을 해전에 참전하도록 했다. 해군은 지리멸렬한 상태였다. 겨우 배는 12척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선조에게 전함 보고에서 신은 배 12척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고한다고 했다. 이순신과 함께한 소수의 병력으로

자연 지락을 통해 왜군을 크게 대파시키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다. 덴마크란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국부라고 불리는 그룬트비히 목사가 있다. 그는 밖에서 잃은 것들 안에서 찾자고 했다. 덴마크를 농업 대국으로 키웠다. 그는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 나의 공로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세우지 말라고 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소수의 창의적 리더들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번영한 나라를 만들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보수 진영의 참패에 대해서 패인이 무엇이라고 여러 가지 진단과 원망과 희망 없는 보수라고 말하며 핀대들의 무리라고 하기도 하고, 부자들과 영남과 강남의 당이라고 비웃기도 한다. 그러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은 기적에 가깝다. 1950년대 자유당이 여당 시절 고무신, 그리고 흰 수건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반장과 통장을 시켜서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래서 고무신 선거라는 별명을 붙였고, 결국 자유당이 압승을 했으나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

통령은 하야를 하고 이기붕 가족은 자결로 끝이 났다. 지금 여당의 선거 전략은 다양했다. 우선 언론을 통해서 실패한 정책들은 모두 숨기고, 위기 극복의 정부로 침소봉대 화장하여 연일연야 보도했다.

뉴스란 카메라 앵글 잡는 것만 뉴스다. 야당은 선거전에서 언론을 의식하고 조심을 했지만, 실수만 부풀려서 방영을 한 것으로 안다. 우한 폐렴도 그렇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후베이성의 전염병 이야기는 떠돌았다. 중국의 장하성이라는 대사가 있다. 본국으로 이 사정을 타진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다. 1월부터 중국의 문을 닫고 전염을 막았으면 이토록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1997년에서 1998년 국무총리인 고건은 홍콩에서부터 괴질이 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공황에 나가 도착하는 비행기에서부터 방역을 실시하여 국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었다. 현 정부의 방역팀은 중국의 우한 폐렴의 진원지임을 잘 알면서 끝까지 개방을 하였다. 복지부 장관은 기자가 묻는 물음에 농담으로 맞

섰다.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다잡을 수 있느냐고 하자. 요즘은 모기가 없습니더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한 폐렴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논리인가?

공수처 법을 일방통행으로 결의하기 위해서 군소정당을 속여 연동비례제를 하면 소수 정당에게도 균등하게 의원을 할당하게 하기 위한 선거법이 라고 설득하고 자신들이 제안한 악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실상은 정의당 같은 경우 완전히 속은 셈이다. 동색(同色)끼리도 사기를 친 것이다. 검경수사권 문제도 그러하다. 이천이 조금 넘는 검찰을 가지고는 국민들을 감시하거나 국민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의 숫자는 2012년의 경우 102,386명으로서 경찰 한 사람이 498명을 케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현 정부의 의도대로 사회감시망과 치안 유지를 하게 하고, 검찰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도 다수이다. 국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30년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임수경의 방북사건은 밝히지 않는 것 역시 현 정부의 본색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 이것 역시 선거운동에 속한다.

특별재난 생계비라고 하는 명목을 붙여서 현금을 살포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나누어 준 고무신 값에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뿌렸는지 모르지만 외채를 내서라도 뿌렸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알팍한 면이 있다. 여의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만 갖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정부가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 없는 국민들은 누구 하나 거절 없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보다 자신이 받을 공짜 돈에 관심이 쏠리게 하여 선거를 치렀다.

검찰은 정부의 모든 비리사항의 수사는 선거기간동안 유보하였다. 만약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만 수사했다라고 대통령은 하야해야 했다. 이런 선거는 당연히 야당에 패배가 자명한데도 선거에 패배한 보수 진영만 모든 언론에게 못매를 맞고 있다. 대표와 칼의 싸

움을 하고 칼 쓰는 사람만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보수의 실제 뜻은 보전이다. 절대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일컫는다.

국가적 절대가치가 무엇인가? 자유와 헌정질서의 수호,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보편적 인류의 윤리와 번영이다. 이 국가적 절대가치가 무너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정당이 되고는 의미가 없다. 이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보수라고 한다. 숫자와 상관없이 없다. 국가적 절대가치를 지키려는 열정이 있는 리더가 소수라 하더라도 난국을 극복하고 번영의 조국을 만들 수 있다. 열정을 위해서 애국적 정신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야당이 온다. 어느 날 스스로 붕괴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연재]이승만 시대(7) 러-일 전쟁..출옥..고종 밀사로 미국 유학길



▲ ②이승만이 1904년 11월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아버지 경선공을 모시고 찍은 가족 기념사진. 오른쪽 끝이 이 박사의 첫 부인 박씨이고 그 다음이 이승만이다. 이승만 옆의 어린이가 아들 봉수, 그 옆에 경선공이 앉아있다. 왼쪽 맨 끝의 여인은 이 박사의 만능남이며 봉수의 뒤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의 아들(이 박사의 생질) 우중 구이다.

출옥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르다

1904년 2월에 터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감에 따라 한성감옥의 정치범에 대한 석방이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 감방 동료들이 하나씩 자유를 찾고 있었다. 이승만을 아끼던 민영환과 한규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석방자 명단에 끼지 못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영영 감옥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초조해졌다.

거의 막바지인 1904년 8월 9일에 가서야 석방 허가가 났다. 간수가 감방문을 열고 그에게 나오라고 손짓했을 때, 이승만과 그를 도와주려 했던 감옥서장 김영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감옥 뒤뜰에서 처형당할 때 만세를 부르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던 애국자 장호익이 떠올랐다. 장호익은 일본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개화파 장교로서 박영효의 쿠데타 실패로 잡혀 들어와 처형을 당했

던 것이다. 감옥 밖으로 나온 직후, 이승만은 전덕기 목사가 이끌고 있던 남대문 안쪽의 상동교회(지금의 세로나백화점 자리)에서 청년학교 교장을 맡았다. 그때는 이른바 제1차한일협약으로 나라가 사실상 일본의 지배로 넘어간 상태였다. 일본은 군사적 목적에서 한반도의 어떤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고종은 마지막으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쯤해서 미국도 기대할 만한 나라가 못되었다. 왜냐하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국무부 관리들은 서양화를 추진해 가던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진 외국인들은 소수의 미국인 선교사들뿐이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중원을 설립한 의료선교사로서 주한 미국 공사가 된 호러스 알렌이었다. 그는 미국 정부의 훈령과는 달리 대한제국의 편을 들었다가 미 국무부로부터 공사 자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그런데도 개화파 정치인인 민영환과 한규설은 유학을 떠나는 이승만을 통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볼 생각이었다. 그것은 1882년에 체결된 한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居中調整) 조항에 따라 대한제국의 독립 유지를 위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였다.



▲ 이승만을 미국에 밀사로 파견한 충청공 민영환. 이승만은 이 사진을 그의 처녀작 [독립정신](초판본, 1910)에 실었다.

대한제국의 밀사 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이승만이 미국 유학으로 진로를 굳힌 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희망도 있었다. 아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가거나 죽는 불행을 당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이승만은 민영환의 주선으로 고종 황제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고종이 보낸 궁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고종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자신을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시키고 나라를 망친 무능한 군주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1904년 11월 4일, 29세의 이승만은 신분을 숨긴 채 인천항을 떠났다. 정부의 밀사 자격이었기 때문에 워싱턴의 대한제국 주미공사관에 보내는 정부 훈령을 가방 밑에 숨겼다. 동행자로 이 중혁이란 청년이 있었다. 그는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한성감옥서 부소장 이종진의 동생이었다.

두 사람을 태운 배는 목포와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향했다. 배가 항구에 머물 때마다 이승만은 일본 관리들에게 잡힐까 마음 졸였다. 그의 짐에는 조선정부의 밀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돈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일본까지 가는 배표와 선교사들의 소개장뿐이



▲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이 워싱턴 D.C.로 향하여 여행하던 중 1904년 12월 말 시카고에 들러 그곳 한인유지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오른쪽이 이승만.

었다.

두 사람은 일본 고베 항에 도착해서 한국 교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미국인 선교사 로건은 이승만에게 여비를 보태 주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했다. 그 돈으로 두 사람은 하와이로 가는 조선인 노무자들과 3등 선실에 탔다. 하와이, 캘리포니아를 거쳐 워싱턴으로 1904년 11월 29일 아침 배는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부두에는 윤병구(尹炳求) 목사와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의 존 와드먼 박사가 환영을 나왔다. 그들은 그날 저녁 호놀룰루에서 20km 떨어진 에바의 한인 농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200명 이상의 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승만은 밤 11시까지 길게 연설했다. 집회 마지막에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사인'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애국가를 부르고 헤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윤병구 목사집으로 갔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나라의 독립 보존을 위한 방법을 의논했다. 일단은 앞으로 열리게 될 포츠머스 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 보존 의지를 전달하도록 결정했다. 그 회의는 막 끝난 러-일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뉴햄프셔 주에서 열리도록 되어있었던 것이다.

그 준비를 위해 이승만이 먼저 워싱턴으로 떠나고, 윤병구는 경비를 마련하는

대로 뒤따르기로 했다.이승만과 이 중혁은 한인들이 모아준 30달러로 3등 배표를 샀다. 그리고는 1904년 12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 이승만과 함께 미국 대통령 테오도어 루즈벨트를 만났던 하와이 교민대표 윤병구 목사.

거기서 두 사람은 두 아들을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휘시 부부를 찾아 갔다. 휘시 부부는 두 사람을 돕기 위해 샌안셀모 신학대학 학장에게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3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다. 졸업 후 한국에 선교사로 돌아간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한제국 정부의 밀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남쪽의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거기에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 유학하고 있던 옥중동지 신흥우가 있었다. 그러나 여비가 모자라 이승만만 동부로 떠나고, 이종혁은 그대로 남았다.

성도가 '교회다운 교회' 알 수 있도록 훈련 통한 체득 힘써야

김두현 목사의 이것이 목회 본질이다



김두현목사

21C목회연구소 소장,



▲김두현 소장이 2015년 경기도 화성 동탄시온교회에서 열린 처치플랜팅 콘퍼런스에서 강의하고 있다. 21C목회연구소 소장

해서 배울 수 있는 텍스트나 깊이 있는 훈련 매뉴얼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배운 경험이나 교회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교회관을 갖고 오늘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에 따라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나는 21C목회연구소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 집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20여년 그 길을 가고 있다. 설교 중심에서 훈련 중심의 목회로 변화하는 것이다. 설교가 회중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라면, 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목회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목회에는 설교도 있었지만 가르침이 중심이었다.

현대 교회의 질병은 목사가 가르치기를 싫어하고 성도들은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목사나 성도들은 이미

20~30분의 설교 중독에 빠져 있다. 별도로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와 배우는 헌신이 없다. 편리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사람은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강력한 훈련이 강력한 사람을 만들고 바른 훈련이 바른 사람을 만든다. 교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교재 중심의 책을 펴냈고, 많은 분량을 교회 훈련 교재 만드는 데 할애했다(에이플워커4단계, 교회를 경험하는 삶, 리더훈련매뉴얼, 교회 네트워크 등 30여종).

그리고 가장 쉬운 단계부터 질을 높이는 리더 양육에 이르기까지 힘들어도 교회를 배우게 하는 데 역점을 두는 목회 변혁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교회의 임상을 통해 왜 훈련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구교회관의 틀과 체질을 깨는 작업에 올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 오랜 기간 교회를 배우는 데 힘써야 교회의 가치와 권위, 신비와 비밀을 알게 된다. 교회를 모르면 의롭지

도 거룩하지도 질서도 없는 자기 믿음에 의존해 교회를 다닐 뿐이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슬로건은 'Acts 29 교회'이다. 사도행전을 성실하게 실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세계 교회가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을 통한 교회 훈련에 목회 교육 비전 분야가 일치를 이루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개교회주의 탈교회관 제도 지배구조 구태 목회철학 관습 등에 매몰돼 새로운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래 교회를 향한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는 만성 고질병에 걸린 상태가 됐다.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수는 그의 책 '교회됨'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지고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생존 확보를 위해 폭력에 의존하기를 거부한다.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대한 거부, 혹은 퇴거의 윤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윤리이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

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일 교회가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교회됨을 발견할 수 없고, 이 나라와 도시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막 2:22)

교회를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둘을 살려내는 운동이다. 만일 둘 중 하나에 실패하면 둘 다 버려진다. 새 포도주라는 본질과 그것을 담는 가죽 부대라는 교회관은 끊임 없이 추구해야 할 원칙이다. 한국교회에 새 교회가 필요하다. 소유가 아닌 존재를 위한 교회를 위해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가르치고 가열차게 교회 훈련을 시켜야 한다. 설교 중심에서 교회 훈련 중심 교회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만이 미래에 살아남게 된다.

김두현목사 21C 목회연구소 소장

예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를 아는 것이다. 당신은 교회를 아는가. 교회를 안다면 교회를 정의해 보고,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자신 있게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교회를 정확히 배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훈련을 한다. 성경 읽기, 주제별 공부, 제자 훈련, 큐티, 단계별 성경 공부, 일대일 양육, 평신도 학교, 직분자 교육 등. 기관이나 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를 통해 규칙적, 비정기적으로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는 아직 교회를 집중

이인수목사 기고

5월 가정의 달 (특집) 가정생활의 근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 6월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인수 목사
(현)은누리수련원장
국가유공자, 6.25참전, 무공수훈

5월은 자연의 봄 기운이 대지를 약동하게 만들고 농부들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며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불란서의 유명한 농민화가 밀레가 그린 고가의 명화 「만종」이란 그림이 루브르 미술관에 걸려있다. 그 그림에는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예배당 종소리 가 들리자 팬이와 삽을 내려놓고 서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명화 속에는 세가지의 신성함이 표현되어 있다. 첫째는, 가정의 신성함이고 둘째는, 노동의 신성함이고 셋째는, 종교의 신성함이란 것이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향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습은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란 것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사람은 누구나 일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다. 영국의 저술가인 사무엘 스마일즈는 「창조론」이란 책에서 노동으로 땀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책의 내용 중 유명한 글귀 하나를 뽑는다면 노 스웨트, 노 스위트(No Sweat, No Sweet)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없다'라는 것으로, 그 당시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노동이었는지라 이 책이 영국 사람들에게 노동의 복음서라는 칭호를 들었다한다. 괴테는 인생의 무서운 질병은 나태라면서 무위도식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기회란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면서 휴식만 취하면 회의만이 있을 뿐 폐인과 다를 바 없다라 했다.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을 철저히 징계하고 있다. 잠언 6:6-7에서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늦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라. 좀 더 졸자. 손을 모아 좀 더 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구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다.

때라는 뜻은.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긴박함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이다. 우리의 삶은 늘 카이로스의 삶이어야 한다.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분명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전에 어느 재벌의 인터뷰 가운데 그는 매일 아침 그날의 할 일 때문에 가슴이 설레어 잠이 더 오질 않는다면서 매일 설레임을 안고 새벽시간이면 깨어 일어난다 했다. 바스마르크는. 이렇게 외쳤다. 여러 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은 오직 3가

지뿐이라며, '일하십시오, 더 일하십시오, 끝까지 일하십시오'라고 했다. 하루 놀고 하루 쉬고 무위도식하는 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는 가정이나 국가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사랑의 정성과 믿음을 다해 양육해야 될 것이다(엡 6:4).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가 신앙의 교육자가 된 다한다. 히브리어로, 토라(율법), 호라(부모), 모라(선생), 아라(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란 여기에 기원한다. 존 웨슬러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의 교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녀들의 고집은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 대한 친절로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에게 가르쳐 한다면서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면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또한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여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의 영혼과 육신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 했다.

성경에서. 자녀교육 방법에 대해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할 것이라 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내리라 했고 이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하리라(잠 23:13-14)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잠29-15) 명심보감에서도.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는 효자가 나오고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는 효녀가 나온다고했다.

8일은 어버이날. 어머니란 말만 나와도 울먹여지면서 가슴을 꼭 막히게 하며 눈물이 나온다. 여성은 모든 면에 약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여성 속에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힘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살리고 기도 하고 또는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여성이란 참으로 위대하고 성스럽기까지 한 것은 우리가 이미 생겨난 근본이다. 인생에 있어서 끝끝내 포근한 마음의 고향으로 길러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귀한 어머니의 상이 오늘날 무분별하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황금만능의 사조에 휩쓸려 깊숙이 뒤틀전으로 감추어져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역사에 찬란하게 그려진 오늘날의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들을 발견하는 마음 갖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버이날은 1956년에 제정되었으나 1973년에 어버이날로 제정되어 부모의 은덕에 감사드리는 기념일로 제정된 변경은 어머니 헌신을 기다다가 어버이까지 넣은 것은 결국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천륜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를 가르켜 천륜이라 한다했다.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혈맹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도 질서가 있고 예의범절이 있는 것이다.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애정이 있다. 이 모두를 통칭해서 천륜이라고 한다.

빌리 켄다는. 말하기를 기도하는 어머

니의 자녀는 지옥의 세력이 뺏지 못한다 했고,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 칭하는 켄다싱은. 내 어머니 품 안은 나의 신학 교였다 했다. 인간이 세상에 생겨나서 만나는 최초의 스승은 어머니시다. 그 어머니는 최대의 교과서이며 최대의 하나님의 모습이며 최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불란서 영웅인 나폴레옹은. 어머니는 스승 중의 스승이라 칭했으며 자식의 운명은 그 어머니가 만든다고 갈파했다. 히틀러가. 600만명의 유대인을 죽인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 했다. 장사하는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울 때마다 어머니는 이웃집 유대인 청년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어 어린 히틀러의 가슴 속에 유대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복수하기 위해서는 권력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독재자의 꿈을 키웠던 것이다. 그러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마침내 독일의 권력자가 되자 처음 시작한 일이 유대인 죽이는 일이었다. 이처럼 히틀러의 어머니는 아들을 600만명의 유대인 학살살인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반면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대부흥사인 D.L 무디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주변 사람들이 여자의 몸으로 9명의 자녀를 키우려면 힘들 터이니 고아원이나 친척 집으로 보내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말하기를 어머니만큼 자식을 위하고 생각해 기도하며 사랑해 줄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며 기도로서 자녀를 키운 결과 1백만명의 영혼을 구워하는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부모 공경이란. 히브리어에서, 카발이라는 어휘를 쓴다.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존경한다, 또 하나는 기쁘게 한다, 세 번째는 순종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릴 줄 알고 미리 이해할 줄 알며 기쁘게 헤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라는 뜻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종교, 어느 지도자도 효도를 강조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孝之行之本).

효도는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라 했고 성경과 기타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옛날에 국가의 충직한 신직자를 선발할 때도 가정에서의 효도 여부를 기준으로 보았다(求忠臣孝之門).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형통한다(家和萬事成). 그 전제조건이 자녀들이 효도하니 부모님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子孝雙親樂). 공자의 효경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다하면 덕스러운 가르침이 백성에게 미쳐서 천하가 본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천자로서 효도라 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일생동안 희생하고 세월이 가면서 자식들이 독립하고 자립했을 땐 부모는 거의 백발이 되고 노인 4고(4苦),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孤獨), 무력(無力)의 역할 상실 등으로 쓸모없이 되어진 노부모를 자식들은 제 살기에 바쁘다면서 쉽게 잊고 지내기가 일쑤이다. 옛 성인들께서는 이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기에 예로부터 전해오는 글에서, 나무가 고요해지려고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해도 어버이가 기다려주질 아니한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

親不待). 부모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생존해계시면 처자식에게 쏟은 애정과 사랑을 부모에게 반이라도 나누어 드리라고 권고하고 싶다.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나이가 늘어갈수록 부모님께 잘해드린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이 생각나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다. 이것이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父母生育)의 은혜이며 보답하는 보본자의(報本之義)라 하겠다. 그런데도 일 년 중 특별한 날 때나 되면 마지못해 한, 두 번 효자랍시고 하며 생색내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닌 올바른 효도를 하여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심함으로 할지니라.(요1서3:18).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엡6:3). 이처럼 성경에서 인간에게 효도를 명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할 것은 그만큼 효도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21일 부부의 날. 가정이란 생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목적이 같고, 행동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순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 가정의 비극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부요가 있어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니라.(잠15:15-16)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을 잘 수 없다. 집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 인간이 부자가 되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부요가 있어야 한다. 성경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니라(잠15:17). 인간의 가장 큰 계 사랑의 부요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할 뿐이다.

조강(槽糠)이란 지계미와 겨를 가리키는 말로 몹시 보잘 것 없는 식사다. 조강지처(槽糠之妻)란 가난한 생활에 지계미와 겨를 먹으면서 함께 고생해 온 아내를 훗날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하더라도 절대로 버리거나 팔시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속담에 애인은 사랑만을 나누려 하지만 부인은 고통까지 같이 나누려한다는 말이 있다.

남편은 늘어갈수록 어린애와 같이 부인 곁을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하여 일본에서는 남편을 비오이는 가을날 구두 밑에 붙은 낙엽으로 비유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부인에게 딱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으려한다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남북된 남편을 36년간이나 기다려 온 어느 할머니가 얼마 전에서야 남편의 소식을 듣고 첫마디가, “결혼했단디까?” “예.” “그럼 됐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지.”라고 했다한다.

사설

가정의 회복을 기도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의 의미는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자는 것이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달이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장 우울한 가정의 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족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족 간의 신앙과 화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측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버이날에 매년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자리를 갖곤 했는데 올해는 모임 대신 부모님께 용돈을 송금하거나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는 것이 유행이란다. IMF 때처럼 얼얼물은 경제가 가정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가족이다. 그런데 가정을 통한 행복을 뒷받치고 부모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자녀들을 공부에 매몰이 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개그 프로의 소재가 된 적이 있듯이 가장 불편한 자리는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것이라고 한다. 경제위기와 이혼, 가정폭력 등 여러 요인으로 가정 해체는 가속화하고 있다.

칼 막스의 아버지는 유대교의 경건주의자였다고 한다. 칼 막스도 아버지를 따라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자녀였다. 하지만 칼 막스의 아버지는 한 작은 마을로 이사 한 다음, 집에 돌아와 폭탄선언을 한다. “신앙을 바껴야겠다. 루터교로 개종을 하자. 이곳에서는 루터교를 믿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감수성이 예민한 칼 막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면 그동안 믿던 하나님은 누구일까?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 결국 그는 무신론적 급진자유주의가가 되었다. 공산혁명을 주도하다 실패한 다음 런던으로 망명, 대영박물관 도서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유물사관을 정립하면서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정신적인 침체 속에 있다가 우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가치관 혼돈이 한 자녀의 운명을 바꿨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예로부터 부부는 서로를 부를 때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 뜻은 남편은 아내를 여보라고 하는데 같은 여(如)와 보배(寶)를 써서 '보배 같은 사람'이란 뜻이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당신이라고 하는데 당할 당(當)과 몸 신(身)자로 '당신은 내 몸'이라는 뜻이다. 보배와 같고 내 몸과 같은 부부, 참 아름다운 해석이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부르면 신뢰와 존경으로 하나가 되는 최고의 부부가 될 것이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예베소서 5장의 말씀이 있다. 부모들이여!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대학』의 명언은 특히 이번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새삼 음미해야 할 경구가 아닐 수 없다.

가정의 달에 가정 회복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섬기는 리더십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도력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도자가 없다. 그야말로 금강산 일만이천 봉우리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아우성이다. 리더십의 수준은 영향력에 달려 있다.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고 지도력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자신의 책 「리더십의 법칙」에서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고 추락하게 된다. 지도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예를 마스크를 통해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으로 자기 훈련을 했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가

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세계의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것도 영향력 때문이다. 예수의 삶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리더십이다. 섬기는 지도자가 없기에 우리는 현재 지도력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다. 정치인도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하고, 경제인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하고 지도자가 지도자다운을 갖지 못해서 국민은 불안해하는 것이다. 섬기는 리더십,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설동옥목사(예정교회 담임, 사단법인 로우 대표)

21세기 개혁신학의 요람 **총회신학원** 입학요강

2020학년도 전,후반기 특별장학생 및 신·편입생모집

■ 모집과정 및 자격

모집학과	모집과정	인원	구분	전형방법
학부과정	신학사(Th.B.)과정 신입	00명	주/야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자
대학원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신입	00명	주/야	M.Div 과정 졸업자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입			학사학위 소지자 동등 자격자(정규신학졸업)
특수반 - 강해설교반	강해설교, 설교작성, 설교전달을 집중강의하는 과정			
- 영어설교반	해외사역과 전문영어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발음, 영어구조, 전달 등을 교육하는 과정			
- 편목과정	본 교단에 가입하거나 목회자들이 정회원이 되게 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			

■ 전형일정 및 방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 수시 접수
 나. 전형방법 : ①서류 ②면접
 다. 전형일자 : 상시 모집
 라. 전형료 : 30,000원(원서대 무료)
 마.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졸업(하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동등 자격자는 해당 증명서 - 각 1부
 (학부과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동등 자격증명서(검정고시 합격))
 3) 당회장 또는 노회장 추천서 - 1부
 4) 주민등록등본 - 1통
 5) 반명함판 사진(원서부착포함) - 3매

■ 특전

입학생 전원 : 매학기 등록금(이사장학금) 50% 지원

- 장학혜택 - 재학 성적 우수자 :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 면제, 봉사자, 특기자 등에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수석졸업자 해외 유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원(M.Div) 졸업자는 대신 총회신학교와 연계된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미국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유학을 추천하면 유학 기간 중 규정된 장학금을 지급함
- 본교 졸업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음
- 미국 Reformed University(미 연방정부 인가 대학)와 연계하여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미국 유학을 도와주며 우수한 신학교에 추천하여 등록금을 지원함
- 본 신학원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통해 졸업 후 목회현장에서 성경 강해와 실천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계절학기(여름, 겨울)를 운영함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입학문의 : 010-9313-8986 010-4690-3301 010-5341-0154

지역별캠퍼스

서울 용산캠퍼스 / 경인 부천캠퍼스 / 경기 남양주캠퍼스
 서울 강북캠퍼스 / 중부 대전캠퍼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총회신학원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3길 58(청파동) 청파중앙교회(02-702-0041)
<http://www.ds1961.com>

이사장 전광훈목사
 총회장 강대석목사
 총 장 김향주목사

